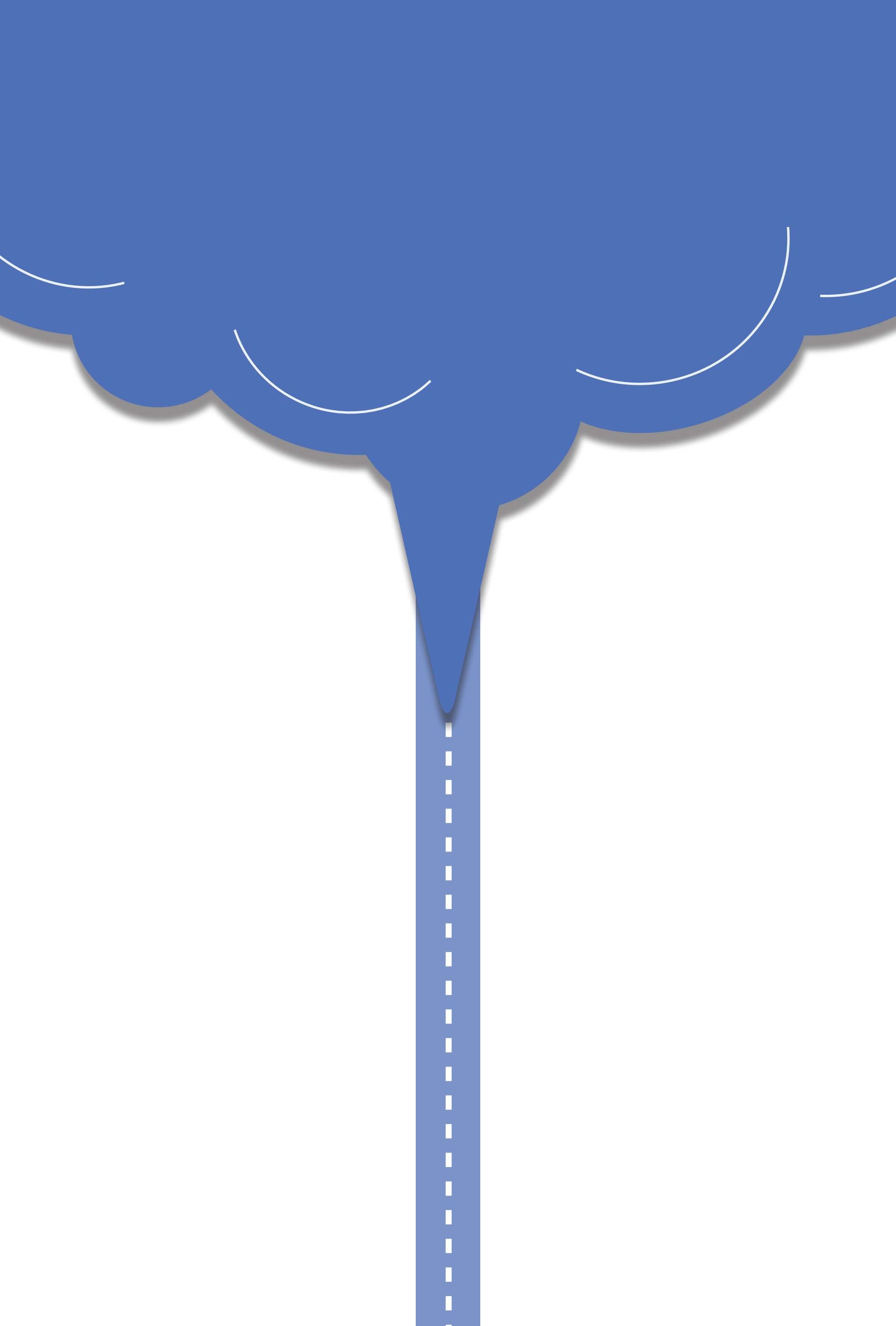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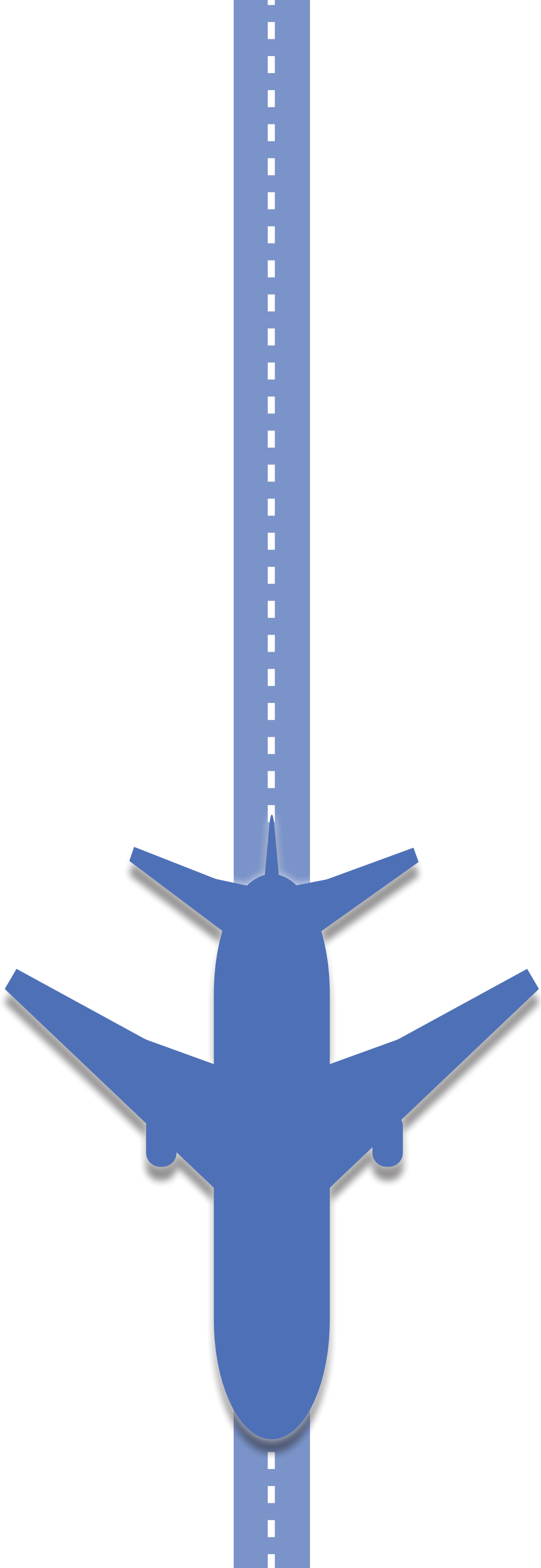


한국과 아시아 국제관계 자료집

Republic of Korea and Asia Realationship Material









< 차례 >

추천사 . . . 6

들어가기 . . . 8

1.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1.1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 . . 12

1.2 중국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 . . 17

1.3 한국과 몽골 교역의 현재와 미래 . . . 21

[더 알아보기]

대만 ITRI 소개와 한국 기업과의 협업 . . . 27



2.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

- 2.1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문화 교류 . . . 32
- 2.2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에 대한 이해 . . . 36
- 2.3 한국과 아랍 국가의 산업 및 경제 교류 . . . 41

[더 알아보기] 한국의 테헤란로 . . . 45

3.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

- 3.1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 . . 50
- 3.2 베트남 전쟁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 . . . 54
- 3.3 한국과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의
현재와 미래 . . . 58

[더 알아보기] 동남아시아와 K-CULTURE . . . 64

참고문헌 . . . 68

< 추천사 >

한국의 외교와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등대같은 책

왜 이 책을 추천하시나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 없이 중요합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교류와 소통의 중심축인 동시에 대립과 충돌의 화약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의 시기 한반도가 번영과 성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 또한 격변과 혼란의 상황에 직면해서는 외부 세력 간 이익과 갈등이 첨예하게 맞부딪친 전장(戰場)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여실히 증명됩니다. 명백한 사실은 한반도 내부와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한반도 둘러싼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한반도는 위기에 직면하곤 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당연히 반도국가로 규정되지만, 사실 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도국가는 아닙니다. 한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것은 맞지만, 한국은 반도국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반도(半島)라 함은 절반만이 섬이어야 하고, 곧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조건과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은 맞지만 한반도 북부를 차지한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통로가 한 치의 틈도 없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북쪽 절반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단절된 ‘회색지대’ 일 뿐이고, 한국은 반도국가도 아니고 섬도 아닌 ‘기형적인’ 상태에 처한 국가인 셈입니다. 북쪽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소통과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 갇힌 한국은 국제적·외교적으로 상당 부분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교와 대외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없겠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외교가 중요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한국과 긴밀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분단된 반도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동맹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는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직하고도 묵묵하게 밧고랑을 걸어가며 왼쪽 두렁의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두렁의 풀도 뜯어먹는 황소와 같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혼란과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진 듯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강대국들 간의 세력 경쟁도 날로 첨예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양자질서를 넘어서는 다극화된 국제질서 체제가 구축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한 파란학기 EastLander팀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대만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더 멀리 중앙아시아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민족, 문화, 경제라고 하는 3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치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과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EastLander팀의 연구가 한국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하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EastLander팀의 노력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 책을 활용하는 모든 독자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도 기원합니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부교수
한상준

< 들어가기 >

3가지 테마로 보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들의 국제관계

한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약, 문화 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노력이 G20 정상회의, 유엔 가입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제관계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서양의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서양 강대국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위치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들도 이러한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신경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고 중동 오일머니의 위력이 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해당 지역들과의 관계 생성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 학계는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줄 만한 연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 관련한 국제관계 연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중앙아시아의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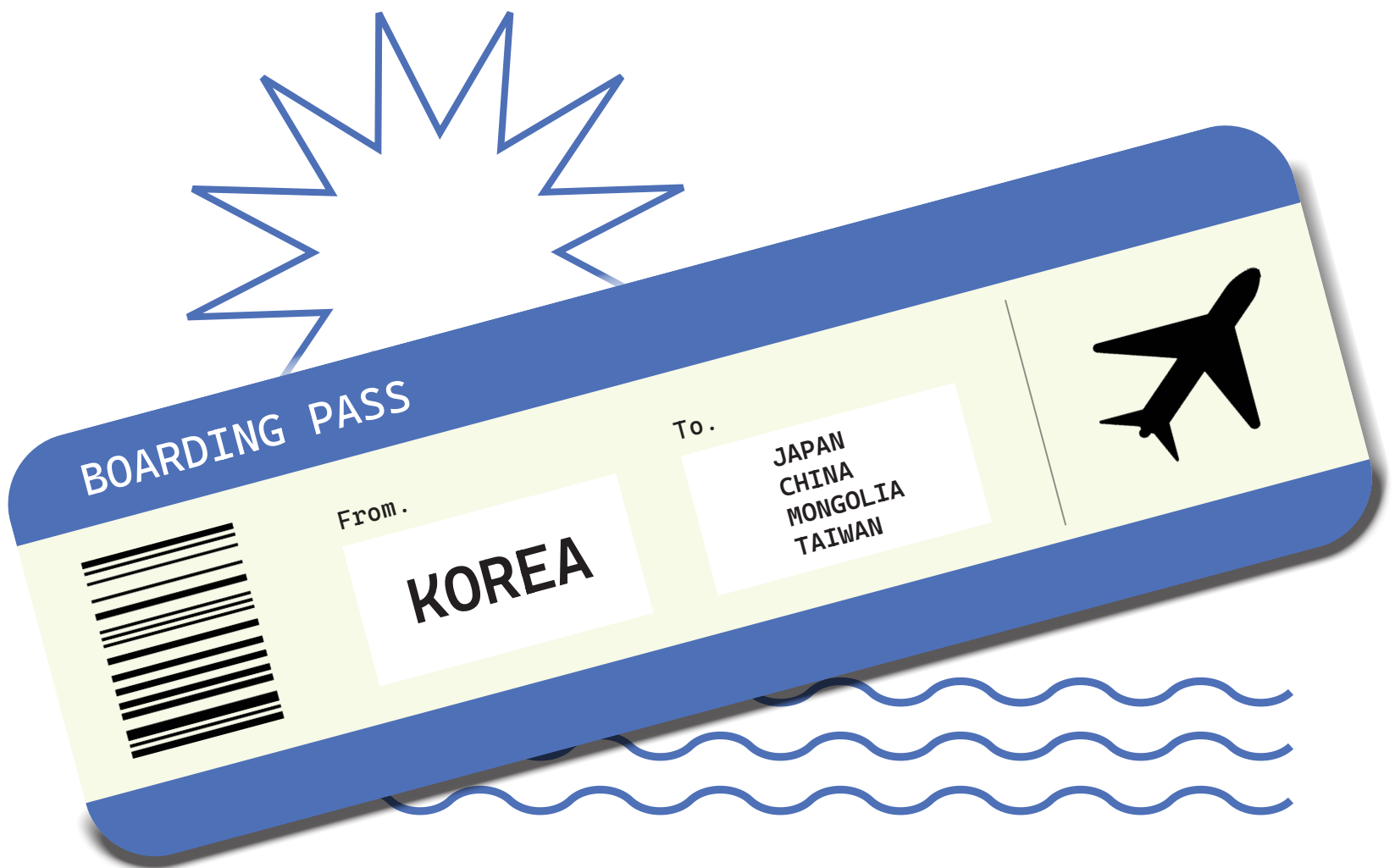
아시아 여러 지역들과의 국제관계도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고, 이에 팀을 꾸려 ‘한국과 아시아 국제관계사료집’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도서를 제작하고자 한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세부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아시아 지역들을 포괄하는 테마들로 소단원을 정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게끔 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타 지역과의 국제관계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국제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테마들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민족’, ‘문화’ 그리고 ‘경제’의 3가지 테마로 잡아 한국과 아시아 지역들간의 국제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과 아시아 타 지역들간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과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향후 한국이 아시아 지역들과 국제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여 3가지의 테마로 잡아서 도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EastLander 팀장

김주영





1.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1.1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1.2 중국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1.3 한국과 몽골의 경제 교류

[더 알아보기] 대만 ITRI 소개와 한국 기업과의 협업

1-1.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방학 중 대학생들의 SNS를 둘러보면 국내 인기 있는 여행지만큼이나 자주 보이는 곳은 단연컨대 일본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 수단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를 타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참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 속 많은 일들로 얽혀있고, 두 국가의 교류는 한 순간도 끊임없었다.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에는 백제를 비롯한 여러 삼국의 영향이 컸다. 이후 일본의 역사 속에 삼국, 고려, 조선, 한국은 큰 영향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빼놓고 한반도의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본 단위에서는 새천년 이후,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본 단원에서는 새천년 이후,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1) 스포츠 교류: 뜨거운 함성, 2002 월드컵

한일 문화 교류의 가장 큰 이벤트로 여겨지는 2002 한일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축구에 대한 열기로 뒤덮었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FIFA 월드컵 대회이자, 역대 최초로 두 국가에서 주관하는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한일 양국은 각각의 대표팀의 상징색인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개최 과정에서 대회 명 표기를 시작으로 경기 배치, 결승전 개최국 등에 이르기까지 생겼던 양국간의 마찰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세계대회의 명성에 걸맞게 양국 또한 서로의 절충안과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며, 문제없이 월드컵은 개최될 수 있었다.

대회는 18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라는 막대한 수익금에서 알 수 있듯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국에는 축구붐이 뜨겁게 불어왔다.¹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인 4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고, 일본 역시 16강 진출, 대회 9위를 기록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조차 사무라이 축구가 통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회가 마무리되고 한국의 K리그는 이후 10년간 평균관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월드컵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는 성공적인 대회 흥행이 10년 동안의 스포츠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월드컵의 흥행을 통해 한국의 IT 산업 세계화의 발전가능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국가이미지 쇄신을 통한 국제정치적 지위향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한국문화의 수출과, 민족단합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²

2) 생활 속 교류: 먹고, 보고, 놀자

한국과 일본의 생활 속 문화교류는 찾아본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 삶에 당연한 듯 녹아 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짱구는 못말려>를 보면서 수없이 웃었고, 기호에 맞게 스시와 라멘을 점심 메뉴로 결정하고, 비 오는 주말이면 이불 속에 누워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곤 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가 되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을 가면 일본 상인들이 간단한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 기분을 가볍게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한국 문화의 흥행이 일어났다. 14세의 어린 가수 보아(BoA)가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하고 배용준 주연의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강력한 한류의 바람이 불었다. 음악적 부분의 흥행과 일본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흥행은 단순한 잣대였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1차 한류의 흥행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기 위한 작은 바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드라마 작품의 흥행은 마니아틱한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지 않는다면 한류의 열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2번째 찾아온 한류의 열풍은 더욱 후끈했다. 시간이 흘러 동방신기, 빅뱅(BIGBANG), 카라, 소녀시대의 여러 한국 아이돌의 일본 진출은 일본 내 젊은 세대를 열광케 했다. 2010년 이후 진출한 1, 2세대 걸그룹의 대표주자인 소녀시대와 카라의 경우에는 일본 현지 뉴스에서 보도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흥행은 역시 새로운 문화와의 연결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 의류, 화장품과 같은 음악 이외의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2010년대 중후반쯤 발생한 3차 한류에서는 SNS가 발달하고 아이돌의 일본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문화를 유입시켰다.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TWICE)를 필두로 한 신한류 열풍은 SNS라는 강력한 무기와 함께 날개를 펼쳤다. 2000년 초반의 한류 당시에는 삼겹살, 간장게장 등의 요리가 각광받으며 일본 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졌던 한편, 3차 한류에서는 불닭볶음면이나, 치즈닭갈비 등 현재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음식들이 일본에서도 동시에 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는 가볍게 여행하기 좋은 일본에서 표출되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인기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2023년 1월~7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은 총 1,303만 2,900명이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은 375만 5,300명, 즉 3명 중 한 명 꼴이었고 국적별로는 1위에 해당한다.³ 추가로 짧은 비행시간을 비롯한 엔저현상도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 필요에 의한 교류: JPT와 한국어능력시험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산업과 문화의 전개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언어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JPT(Japanese proficiency Test) 시험을 매월 1회씩 연간 12회 실시하고 있다. JPT는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인정한 시험으로 일본 외 국가가 주관하는 일본어 검정시험 중에서는 유일하다. JPT의 한국인 응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한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검정(TOPIK) 시험의 경우, 일본에서 이 시험을 응시했을 때, 2019년과 비교해 응시자 수가 48% 증가하여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시험장 또한 32개에서 56개로 증설하는 등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관심이 커져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내에 한국 정부가 인가한 한국계 학교(도쿄한국학교, 학교법인 백두학원, 학교법인 금강학원,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도 다수 설립되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일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근접성이, 문화적 교류로 이어지고 나아가 언어적 교류까지 확대되어 양 국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 관계를 주로 경제교류나 교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문화 교류를 통해서도 충분히 타국과의 국제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서로 갈등은 하고 있지만,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현재의 한국과 일본이 이루어 낸 국제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1-2.

중국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앞서 언급한 일본과 같이 중국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부터 많은 교류를 해왔고 현재까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방면으로 각 국가는 꾸준히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문화, 경제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술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문화적으로 한국의 k-pop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투자자와 제작사 등이 한국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⁴ 실제로 중국 소비자가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한 후 최소 5년 이상 한국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며 한국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의식이 증대되고 실제로 따라 하게 됨으로써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증진으로 이어졌다. 덧붙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⁵

또한 대중 교역은 한국 경제 성장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 교역이 창출하는 부가 가치는 2000~2004년 평균으로 전산업 KIET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부가 가치의 약 1.5%(2004년에는 약 2.8%)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가 속도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교역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고용 유발 효과 또한 증가하는데 실제로 고용 계수가 낮은 중화학 업종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고용 유발 규모는 2000~2004년 간 연평균 9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중 교역은 한국 산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제조업, 전산업, 소재 산업 외에도 제조업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업 직종에도 성장 기여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금도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한국은 꾸준히 중국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꾸준한 기술 향상을 통해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대중 교역의 추세와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중국으로부터 무역적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⁶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첫 번째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오녀산성이 중국 북방 선주민들이 구축한 전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녀산성이 중국의 고대 성곽 건축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⁷ 또한 고구려가 한나라의 현토현에 국가를 세웠다는 주장을 하며, 고구려가 중국 정부로부터 벼슬을 받아 통치한 지방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고구려가 중

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등 다양한 역사 왜곡 시도가 진행됐다.⁸

다음으로 중국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연속적으로 한국의 경제 또한 흔들리기 쉽다. 일례로 2021년 12월 중국에서 헝다 사태가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그룹이었던 헝다 그룹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개발 업체 대출 규제에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다.⁹ 한국은 다행히도 당시 추석 연휴 때문에 국내 증시가 휴장 상태였고 덕분에 국내 시장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한국 경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중국 부동산 1위 기업이었던 바구이위안도 부도 위기에 처했다. 바구이위안은 헝다 사태로 헝다가 무너진 이후 2022년 5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바구이위안 그룹의 부도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율은 25.4%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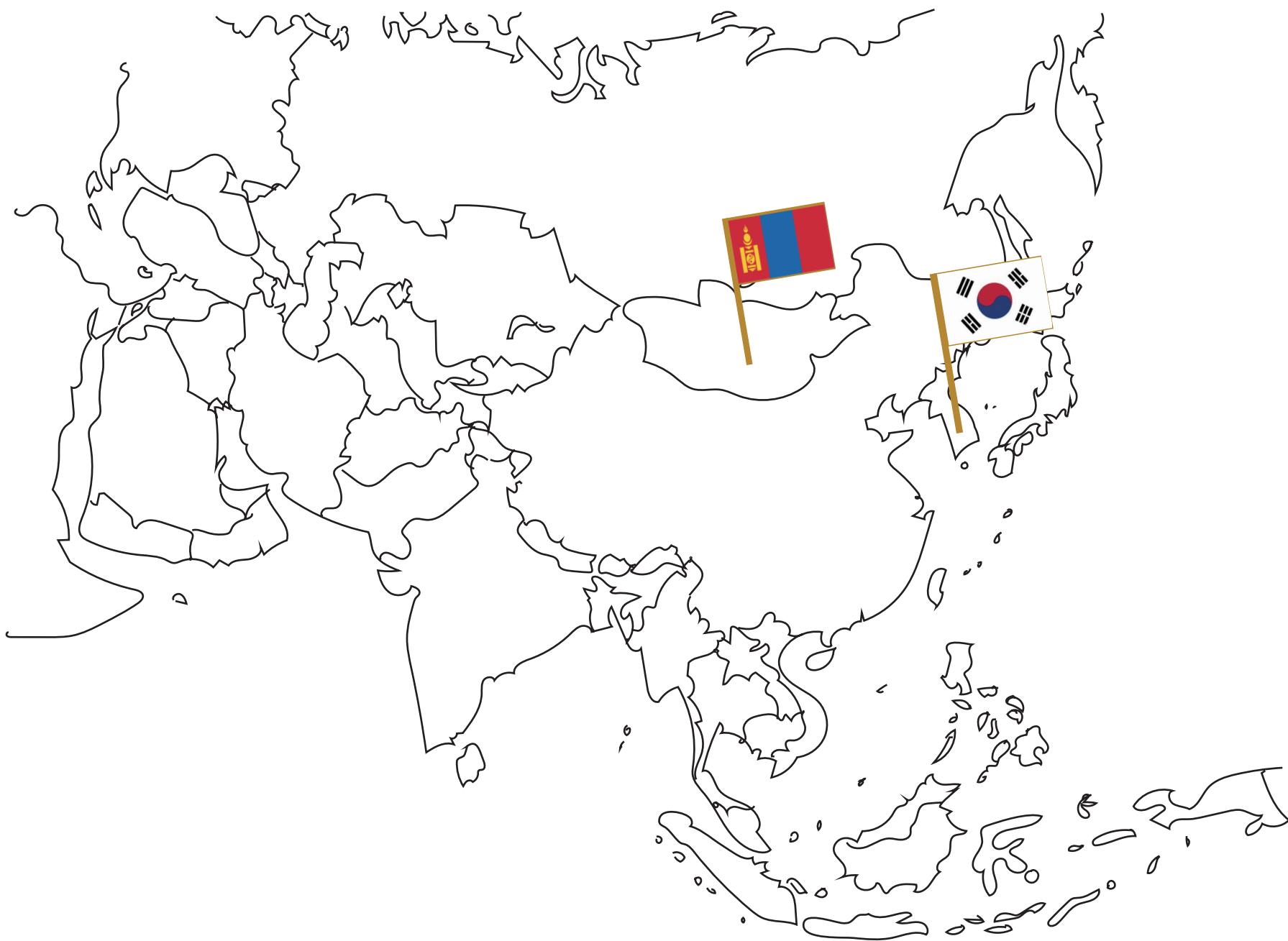
국가 간 외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과거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류 금지령, 일명 ‘금한령’이 내려졌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불매 운동을 유도하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¹¹ 실제로 금한령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한국의 4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3,615억 원 증발 했으며,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업이 35.3%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계약 중도 해지, 심의 및 통관 과정의 지연, 행사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에도 롯데그룹은 유통업 측면에서 수조 원의 손해를 입었고 베

이징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중국 지사도 큰 타격을 입었다. 배터리 사업 또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하며 전기차 분야에 적극 진출하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 판호 허가를 받지 못해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는데, 금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 수출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¹² 미국과 일본 게임은 허가를 받았는데 한국 게임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면 금한령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년 9개월 만에 다시 판호 발급이 진행되기 전까지 한국은 단 한 개의 허가도 받지 못했다.¹³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관광 업계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한국과 중국은 상호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여러 산업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으며 동시에 한국 또한 중국에 여러 방면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한령이 해제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수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왜곡과 불법 조업, 그리고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의 중국의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앞에 나열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왜곡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고 경제적 지위로 인해 압박받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중국으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이다.

1-3.

한국과 몽골 교역의 현재와 미래



‘몽탄 신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비슷해서 생긴 별칭이다. 몽골 풍경이 한국 신도시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한국 기업 진출의 발판은 2000년대 초반 마련되었다. 한국 드라마가 이끈 한류 열풍에 몽골도 함께하면서 몽골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몽골에 진출하는데 큰 저항이 없었다. 한국 기업이 몽골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뜻밖에도 편의점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사, 쾌적한 휴게공간, 카페의 역할을 제공하게 되면서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후 편의점 이외에 대형마트나 제과 프랜차이즈점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몽골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¹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몽골에 진출하면서 현재 한국과 몽골의 교역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과 몽골의 교역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KOTRA에 따르면,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무역 교류가 시작됐으며, 2012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4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작년 한국의 對 몽골 수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약 4억 3,000만 달러, 수입은 53.3% 증가한 3,824만 달러를 대외교역액은 212억 달러(약 28조 4,000억 원)를 기록했으며, 對 몽골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8억 달러(약 5조 1,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양 국가 간의 무역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이 되었다. 몽골은 80여 개의 광물을 보유하는 광물자원 부국인 만큼 광물 수출이 몽골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몽골의 대다수 국가의 수출 품목을 조사해 보았을 때, 광물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액도 약 50% 이상을 광물이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몽골 간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몽골의 對 한국 수출품은 석탄, 방직용 섬유 등의 금속 및 비금속광물, 편직제의류 등이 있다. 반면 한국의 對 몽골 주요 수출품은 담배, 화장품, 화물차, 의약품, 음료, 중장비, 승용차, 석유제품 등이 있다.

한국과 몽골의 통계 수치를 비교할 때, 2013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가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양국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이유를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평가한다. 몽골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 및 개별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이유는 몽골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 수요가 유발된 부분과 한류로 인한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 통신기기 등 큰 파생수요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교역은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양국 교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몽골 경제성장의 둔화, 투그릭화의 평가절하, 몽골의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구매력 약화, 및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인한 수요이동 등으로 추측된다. 현재 한국과 몽골의 무역 규모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두 국가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¹⁵ 2022년 기준 한국의 몽골 수입 비중은 0.006%, 수출 비중은 0.08% 비중이다.¹⁶

KOTRA에 따르면, 몽골의 한국 수입 비중은 4.9%, 수출 비중은 2.2%이다. 이러한 양국의 낮은 무역 규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몽골의 교역 상대국을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몽골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에서 중국이 84.2% 수출과 35% 수입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몽골 수출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이 자원 기반 경제로서 특성과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내륙 국가라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안정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몽골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특정 상품과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과 해당 국가의 경제적 변동에 따라 몽골경제의 변동성도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몽골 교역 비중이 한국경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역 다변화 차원에서 소규모 시장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¹⁷

양국 간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양국은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높은 관세, 몽골의 교역 거래 품목 미비, 높은 운송비, 통관 행정 문제, 몽골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 등이 교역 확대의 장애물로 거론된다.¹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몽골은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9월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국회에서 비준되면 본 협정은 곧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교류 협력의 연기와 중단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¹⁹ 또한, EPA 체결에 대해 한·몽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는지에 대해 불확실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과 몽골의 교역 상황에서 한·몽 EPA가 양국 교역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논문을 통해 한·몽 EPA 체결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양국 교역의 미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한 세 논문은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 과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첫 번째 논문은 중력모형(Gravity Model)²⁰ 이론과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²¹ 이론을 통해 한국과 타 국가 간의 FTA 체결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FTA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기존의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FTA 체결 효과를 추정한다. 비록 통계분석 결과가 양적 변수 중심으로 추정된 것이며, 질적 변수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점과 추정기관 및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지만, 한·몽 FTA는 거대경제권 및 중소규모 경제권 모두에서 경제성장 및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무역 활성화에도 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두 번째 논문은 한·몽 EPA 체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력모형 이론을 이용한 실증분석 방법과 양국 수출입 제품 경쟁력 분석을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 (RCA)²³ 방법을 선택하여, 한·몽 EPA 체결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위 연구의 중력모형 실증분석 결과에서 양국의 거리는 몽골의 교역을 112% 감소시키고 관세율은 교역을 약 2배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A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수출구성과 수입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교역을 확대할 기회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지수를 볼 때,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몽골은 농업, 광업, 섬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화물자동차, 승용차, 전기 및 기계, 장비 및 부품, 식품 등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관세가 완전 또는 일부 감면되기 때문에, 관세 관련 장벽을 낮추고 가격 인하 효과로 교역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몽골의 교역이 1.5배 증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교역은 26.9%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 교역이 68.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²⁴

< 각주 용어 설명 >

20. 물리학에서 국제무역이론으로 도입된 모형으로서 양국 간 무역량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교역을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21. 일정 시점에서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제 행위를 묘사하는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FTA 충격이 발생할 때 내생변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23. 한나라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낸 것.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25. 목표 시장에서의 특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MCA 지수가 '1' 이상이면 목표 시장에서의 해당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논문은 RCA 방법과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²⁵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무역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RCA와 MCA를 도입하여 양국의 품목별 무역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몽골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큰 비교우위 품목은 선박의 데릭, 크레인,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나타났다. 몽골의 경우 장식, 백류석, 하석, 석유와 역청유,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자동자료처리 기계 품목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큰 비교우위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서로 거래할 기회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몽 EPA 체결에 따라 한국이 대몽골에 수출되는 전체 품목의 28% 수준인 2,797개 품목의 관세가 평균 33.4% 내려간다. 전체 몽골산 수입 품목의 6.5%인 366개가 평균 24.2% 관세 인하를 적용 받게 되면서 편직제 의류가 13%에서 9.1%로, 직물제 의류가 13%에서 8.1%로, 비금속광물 형석이 2%에서 1%로 각각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위 논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은 비교적 효율적인 특정 상품으로 중심 되어 생산 및 교역을 넓히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관계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²⁶

양국은 경제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광대한 국토,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광업, 통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수요가 많다. 이는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신성장동력을 모색해 볼 여지도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한·몽 경제협력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몽 EPA를 체결하면 교역 확대는 물론 관광과 유학 등 인력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도 더욱 원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시장개방은 몽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자원개발 외에도 건설,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해 줄 것이다. 몽골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한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 교역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EPA 체결은 교역 외에 투자 측면의 협정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교 정상화 이후 30년간 누려온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역사 및 문화적 유사성, 몽골에서의 높은 한류 분위기, 북한과 몽골의 오랜 우호적 협력관계,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몽골의 역할 등도 중요한 요소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PA를 통해 아시아 대륙에 경제적 우방 국가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²⁷

오늘날 국가 간 경제동반자협정은 단순히 무역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투자유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 개정과 함께, EPA 추진은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 기술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양국 간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관세 인하와 투자 보호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활발한 대 몽골 진출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증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더 알아보기]

대만 ITRI 소개와 한국 기업과의 협업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로 성장한 TSMC와 대만 최초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성장한 UMC 등 다양한 분야의 분사(Spin-off) 기업이 세계적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키운 대만의 연구개발 전문 비영리재단인 ITRI(공업기술연구원)는 1973년 대만의 산업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대만 정부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거의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기업의 분담 비중이 증가했고, 현재는 총수입에서 기술 서비스 수입이 정부의 계약 프로젝트를 웃돈다. 주로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기술개발을 통해 대만의 ICT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경제적 가치,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파트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전념한다. ITRI는 세계 IT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 분사(Spin-off)라는 독특한 전략을 내세웠다. 이때, 분사란 ITRI의 기술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즉, ITRI 대내외의 연구

기관, 대학과 결합해 연구개발 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전략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 방식은 ITRI가 중소기업 위주의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일조하였다. 구체적으로 ITRI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는 ITRI가 개발한 기술을 지역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기술 이전이다. 둘째는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기술 컨설팅 계약 등의 계약 서비스이다. 셋째는 기술을 시험, 측정, 서비스 제공 등의 기술 서비스 제공이다. ITRI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분사 전략 덕분에 성공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사회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나아가 대만 경제를 노동집약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IT산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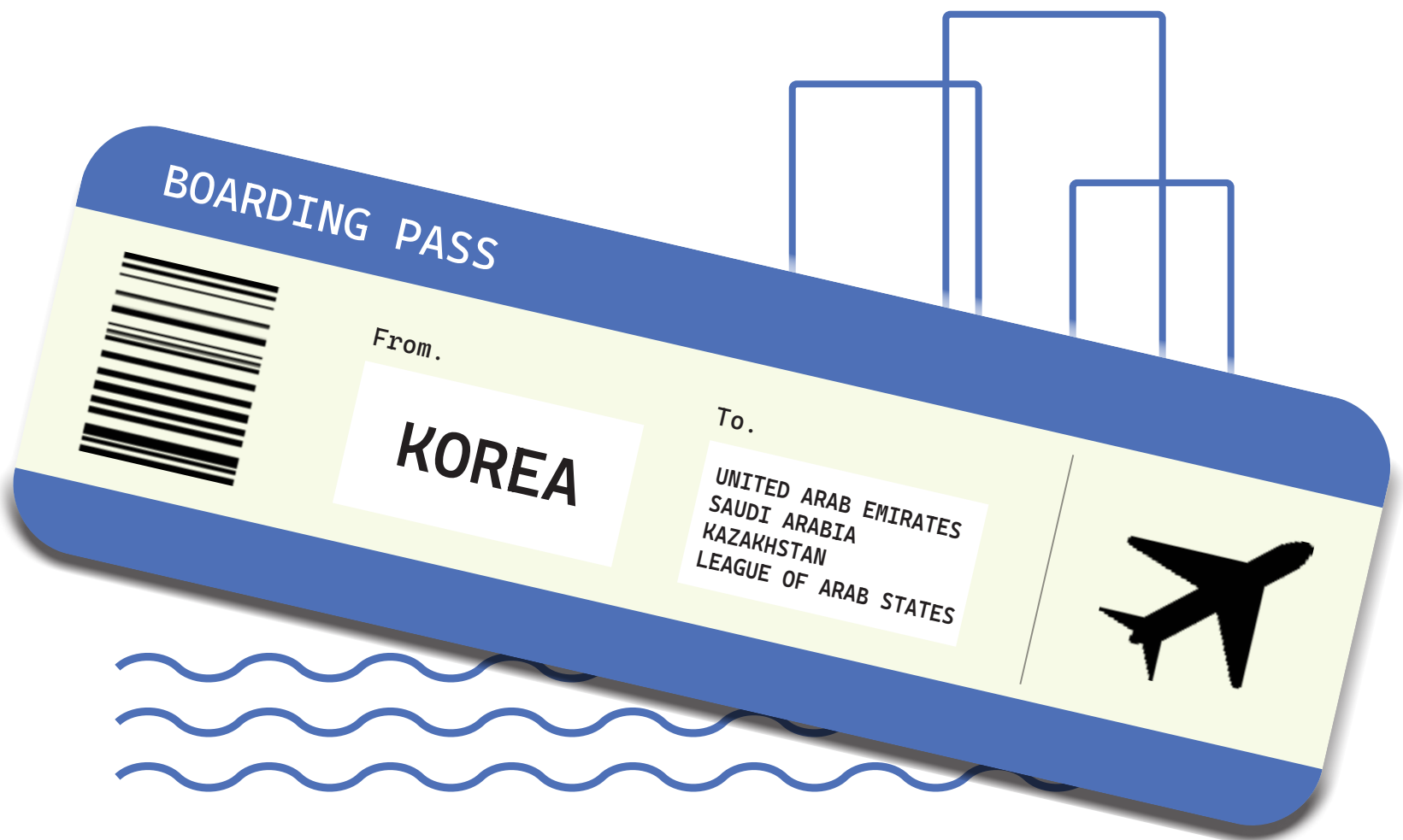
ITRI 행보의 가장 주목할 점은 연계 및 협력이다. ITRI는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초기 ITRI는 해외 기술을 소화해 기업이나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후 대학들과의 장기 협력 아젠다를 구축하여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미국 시장에 출원하는 역할로 변모해 나갔다. ITRI는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의 동반관계를 맺어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³⁰⁾ 한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곳은 LG, 한국안전인증, 아이브이웍스(IV Works),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³¹⁾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간다. 2006년 12월 18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ITRI와 기술협력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사례³²⁾와 2017년 10월 6일에 한국안전인증과 ITRI와의 방폭 분야 기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는 사례³³⁾가 있다. 기술 교류 협정 이외에 ITRI 방문단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방문 등의 사례³⁴⁾도 있다. 이를 통해, 두 국가 간의 교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과 ITRI의 광범위한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ITRI의 협력 사례를 통해 ITRI의 핵심 가치를 살펴볼 수 있었다. ITRI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중소기업 위주 생태계 조성 and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즉 ITRI의 핵심 가치는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ITRI 핵심 가치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각주

1. 민성홍, <국가 대형이벤트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2003, pp.112-117.
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과-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과 과제>, 정보화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 2002, 61-66.
3. 정가영, “[정가영의 유통시그널] 맥주는 일본산 여행은 일본행...‘노재팬’은 옛말”,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4. 변상호 외 2명.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이 한국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pp.91-103.
5. 위의 논문, pp.91-103.
6. 강두용,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 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KIET 산업 연구원, 2006.02, pp. 1-57.
7. 徐吉洙, <중국의 역사왜곡 현장에 관한 사례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2005, pp.329-369.
8. 위의 논문, pp.329-369.
9. 이광상, <중국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및 전망.>, 주간 금융 브리프, 2021, pp.19-22.10.
10.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성장률 0.5%p 하락.>, 한국경제주평, 2016, pp.1-14.
11. 권기영(Kwon Ki-Young),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 2017, pp.25-49.
12. 위의 논문, pp.25-49.
13. 위의 논문, pp.25-49.
14. 문수정, “‘동탄과 똑답’...몽골 울란바토르가 ‘몽탄 신도시’로 불리는 까닭은”, <국민일보>
15. 김홍진, “[전문가오피니언] 한·몽 EPA 추진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 포탈>, 2020, pp.1.
16. <KOTRA 한국 무역 현황>, “상세 통계”,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MN/ALL/2022/Y/exp>
17. 위의 15번 브리프

18. 몽크낫산 외 2명,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 몽골학, 65, 297-320, 2021, pp.18-20.
 19. 위의 15번 브리프, pp.3.
 20. 위 용어 설명란 참고
 21. 위 용어 설명란 참고
 22. 김홍진,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2), 2006, pp. 496-517.
 23. 위 용어 설명란 참고
 24. 몽크낫산, 어트경사이항, 김홍진,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 몽골학, 65, 297-320, 2021, pp.5.
 25. 위 용어 설명란 참고
 26. 칼리운,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7. 위의 15번 브리프, pp.4.
 28. 김홍진, <투르크•알타이 경제권 자료집 36>,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2021, pp.44-51.
 29. 전황수, <대만 ITRI 현황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pp.5-8.
 30. <ITRI 소개>, “미디어센터”, <https://www.itri.org.tw/english/index.aspx>
 31. 위의 브리프 참고, pp.9.
 32. 서민규. “에기연·대만 산업기술연구원, MOU”, <투데이에너지>
 33. 안현진, “대만 방폭인증시험, 국내서도 가능해진다”, <안전신문>
 3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만 과학기술부 및 ITRI 방원”, <포토뉴스>
- * [더 알아보기 사진] <ITRI>, ITIC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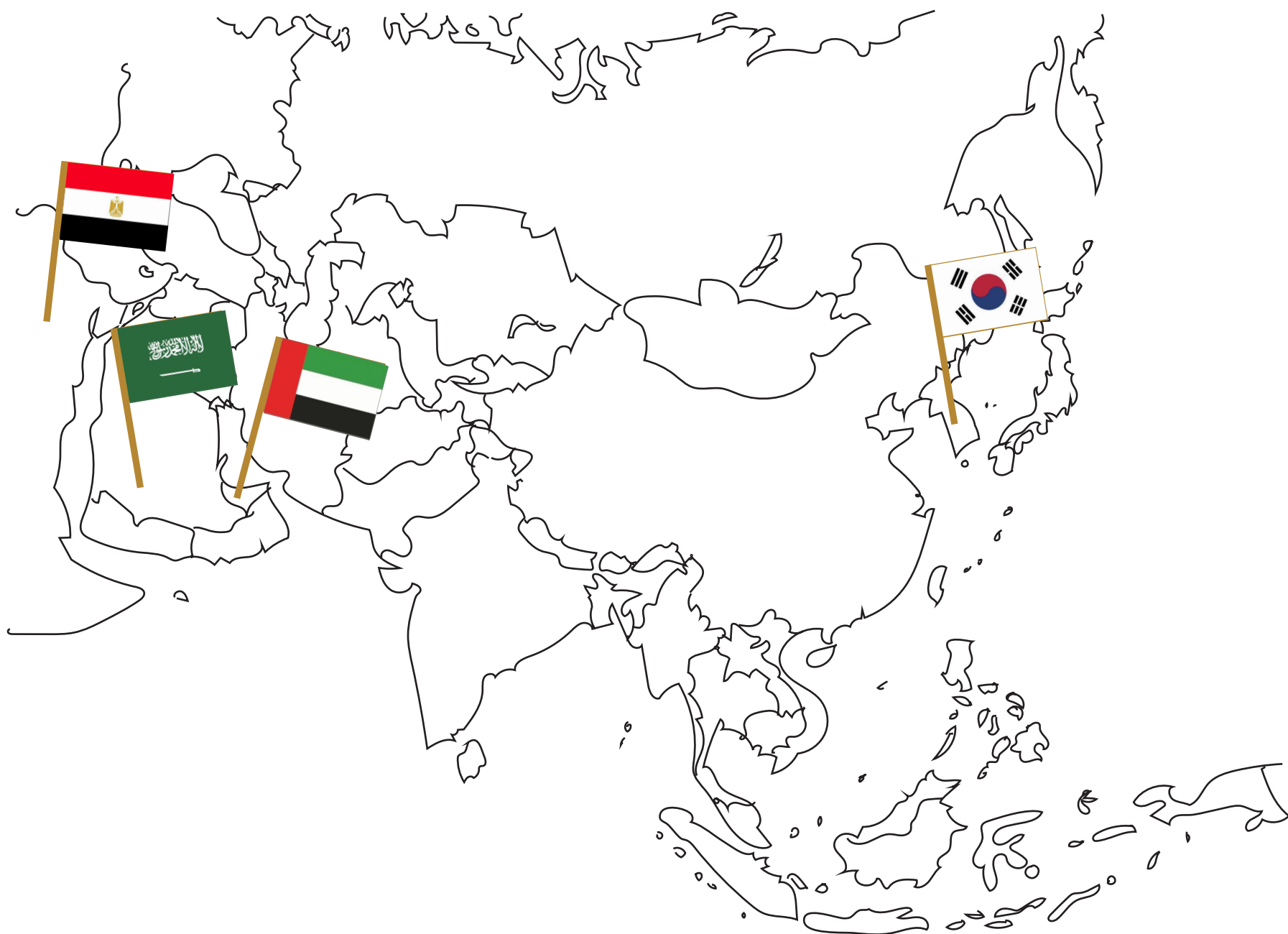
2.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

- 2.1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문화 교류
 - 2.2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에 대한 이해
 - 2.3 한국과 아랍 국가의 산업 및 경제 교류
- [더 알아보기] 한국의 테헤란로

2-1.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문화 교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국가 간 교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정상 회담이 열렸고,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삼성물산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등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은 아랍권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아랍 국가 간에 어떤 부분에서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외교는 과거부터 살펴봐야 한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를 통해 아랍과 이슬람 권역에 고려가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고려에 아랍인 공동체가 생겼고 아랍인이 고려 관직에 등용되기도 했다.³⁵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교류를 통해 조선 초기 과학기술과 공예품의 발전에 기여했고 영향력이 점점 증가했다. 보수적인 유교 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두 국가 간의 교류가 적어진 때도 있었으나, 조선 말기 개화로 문호를 개방하고 오스만 제국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다시금 교류가 활발해졌다. 1961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최초로 아랍어과가 개설됐고, 1970년대 중동 국가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 항만공사를 비롯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³⁶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아랍 국가는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아랍 국가는 게임 문화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게임 산업에 약 38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게임과 e스포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하는 금액은 사우디 최대 사업인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시티’ 사업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게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억 8,80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리그 운영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Gamers 8’이라는 대회에 여러 나라의 프로 게임 팀이 참여하여 대회가 운영된 적도 있다. e스포츠로 이미 활발하게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한국과 교류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e스포츠 시장 개발에 힘쓰고 있다.³⁷

아랍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 또한 활발하다. 아랍권에서 한국어 교육은 1999년 요르단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요르단의 요르단 대학교, 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 대학교 그리고 수단의 알 아즈하리 이스마일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하여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에서는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드라마 ‘가을 동화’와 ‘겨울 연가’가 방영되면서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집트의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김종도의 『아랍국가의 한국어 교육현황』 논문에 따르면, 요르

단의 여러 대학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됐으며 한 학기 당 평균 100명 정도가 수업을 수강한다고 한다.³⁸ 이집트 대학에서는 문법, 회화, 에세이 등을 수강하며, 4학년이 되면 20쪽 분량의 논문을 제출한다. 특히 이집트는 관광이 주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광학부와 관광 호텔 교육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가이드를 양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 대사관의 한국어 강좌와 청소년 센터의 한국어 강좌 등 민간인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다. 요르단과 모로코 또한 선택 강좌를 개설하여 자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³⁹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아랍 간의 교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아랍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인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9.11 테러를 비롯한 여러 테러의 주축으로 아랍권 일부 국가가 지목되었고, 시리아 내전 등 연속적으로 부정적 사건들이 터지면서 아랍 국가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정부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22개 국가로 이루어진 아랍리그와 2008년 정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라는 공익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경제적 및 종교적 이유로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개발 원조(ODA)가 주목받고 있다.

ODA는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 기술 협력, NGO 유형,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발 인식 증진의 방식을 사용한다. 프로젝트 원조는 박물관이나 문화센터를 건립하거나 음악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등이 해당된다. 프로그램 원조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를 말한다. 기술 협력은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 조사, 전문가 파견, 자원봉사자 파견,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 협력 관련 물자 지원, 개발 관련 사회 및 문화 사업, 개발 문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가 있다.⁴⁰

현재 KAS에서 진행하는 ODA 프로그램은 ‘한-아랍 문화 축전’ 과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이 있다. 한-아랍 문화 축전에는 다양한 아랍 국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연과 전통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다. 한-아랍 우호 친선 카라반은 한국과 아랍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목표로 2008년도부터 진행되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 행사로 아랍 지역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행사는 전통 공연과 태권도 시범 비보잉 공연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복 입기와 한글 쓰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⁴¹

위처럼 한국과 아랍 국가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부터 시작하여 게임 산업과 음악 산업 등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교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ODA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교류는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2-2.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에 대한 이해



충북 제천시가 고려인협회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아는가? 2023년 7월 24일 제천시는 중앙아시아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이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고려인 지원사업 홍보, 고려인 인재 유치, 발굴 및 추천, 정책 자문 및 제안, 고려인 주민 행사 등 다양한 사업에 고려인협회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⁴² 또한, 시는 고려인 등 재외 동포를 지역 주민으로 맞고, 이들을 지원하여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 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이 조례는 고려인과 재외 동포의 정의와 지위, 고려인과 재외 동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과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외 협력관·협력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다.⁴³

제천시와 고려인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은 고려인에 관한 국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즉, 고려인이 누구이며,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3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3국 중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가지 때문이다. 첫째, 국내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이다. 최근 충청남도와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는 민간 공공외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 고려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를 고려인들에게 선보였다.⁴⁴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국내 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현재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범위의 한정성이다. 고려인의 역사는 카자흐스탄 이외 다양한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3국의 역사를 함께 다룬다면 분량이 방대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 단체와 활발히 교류하는 카자흐스탄으로 한정해서 고려인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 전, 역사적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해 고려인을 규정할 필요함을 느껴 먼저 고려인의 정의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지칭한다.⁴⁵ 고려인의 역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다. 공식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연도는 북경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병합하고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863년부터이다. 당시 함경도 주민들은 압록강을 넘어서 흑룡강(黑龍江) 지역과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이주로, 1869년 당시 조선인은 연해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였다. 1910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조선의 많은 이주민이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에 정착하게 된다. 특히 연해주 지역은 조선 독립을 꿈꾸는 많은 지식인 층이 정착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역사적 격변 속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진혜의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논문에 따르면, 1926년에는 극동 남부지역의 조선인 인구는 16만 7,4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겪게 된다.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비롯된다.⁴⁶

강제 이주의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한인들의 첩자 가능성이 다. 당시 일본은 남만주에서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만주국을 세우는 한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 점령을 개시하였다. 이에 소련 당국은 조선을 점령한 일본이 극동지방의 한인들을 첩자로 사용하여 소련 침략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려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서로 유사했기 때문에, 일본 첩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극동주의 전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논리이다. 둘째, 극동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의 규모이다. 중앙 당국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고려인의 영토적 자치 요구 가능성과 러시아인과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로 추정된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구 유입책 필요성이다. 소련에서 실시된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자체 인구가 급감하게 된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구를 공급하고 아울러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인구 유입이 필요하여 판단했다고 생각한다.⁴⁷ 강제 이주 후, 이주민들의 거주 이전은 불허되었고 1953년 스탈린 사망 시까지 16년간 유지되었다. 그 기간 중 민족 교육 및 문화행사도 제한되었다.⁴⁸ 그들의 본격적인 민족적 권리의 복권과 명예 회복은 1980년 후반 페레스트로이카 2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 사회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15개의 독립 국가 탄생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⁴

< 각주 용어 설명 >

50. 1937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을 공동체로 결속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카르막치 구역에 설립한 고려인 집단 농장.

53. 카자흐미시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금속을 생산한다.

54. 알마티시와 아스타나시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쾌적한 고층 빌딩을 짓는 건설 회사이다.

고려인은 소련 당국의 강제 이주 지시로 콜호즈⁵⁰에 거주하였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이전까지 통제되었던 고려인에 대한 거주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급속한 도시 이주와 높은 교육열에 따른 러시아 동화를 들 수 있다. 스탈린 사후, 고려인의 거주 이전의 제한이 철폐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주로 도시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하였다. 뚜렷하게 나타난 고려인의 도시화 경향의 동인은 높은 교육열과 사회 경제적 지위 추구, 농촌 지역의 여건 변화로 분석된다. 즉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취 욕구가 다른 민족보다도 강하였기 때문에, 강제 이주 초기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점차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인들의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동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고려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어의 효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은 빠르게 러시아어에 동화되면서 그들의 직업은 집단농장 중심의 농부에서 학자, 교사, 의사, 법률가, 정치인, 예술인, 공무원, 건축가, 기술자, 사무직 노동자 등으로 다 변화하였다. 다양한 직업 선택은 현지 고려인 사회의 개인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고려인 사회의 위상이 커짐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경제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상은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고려인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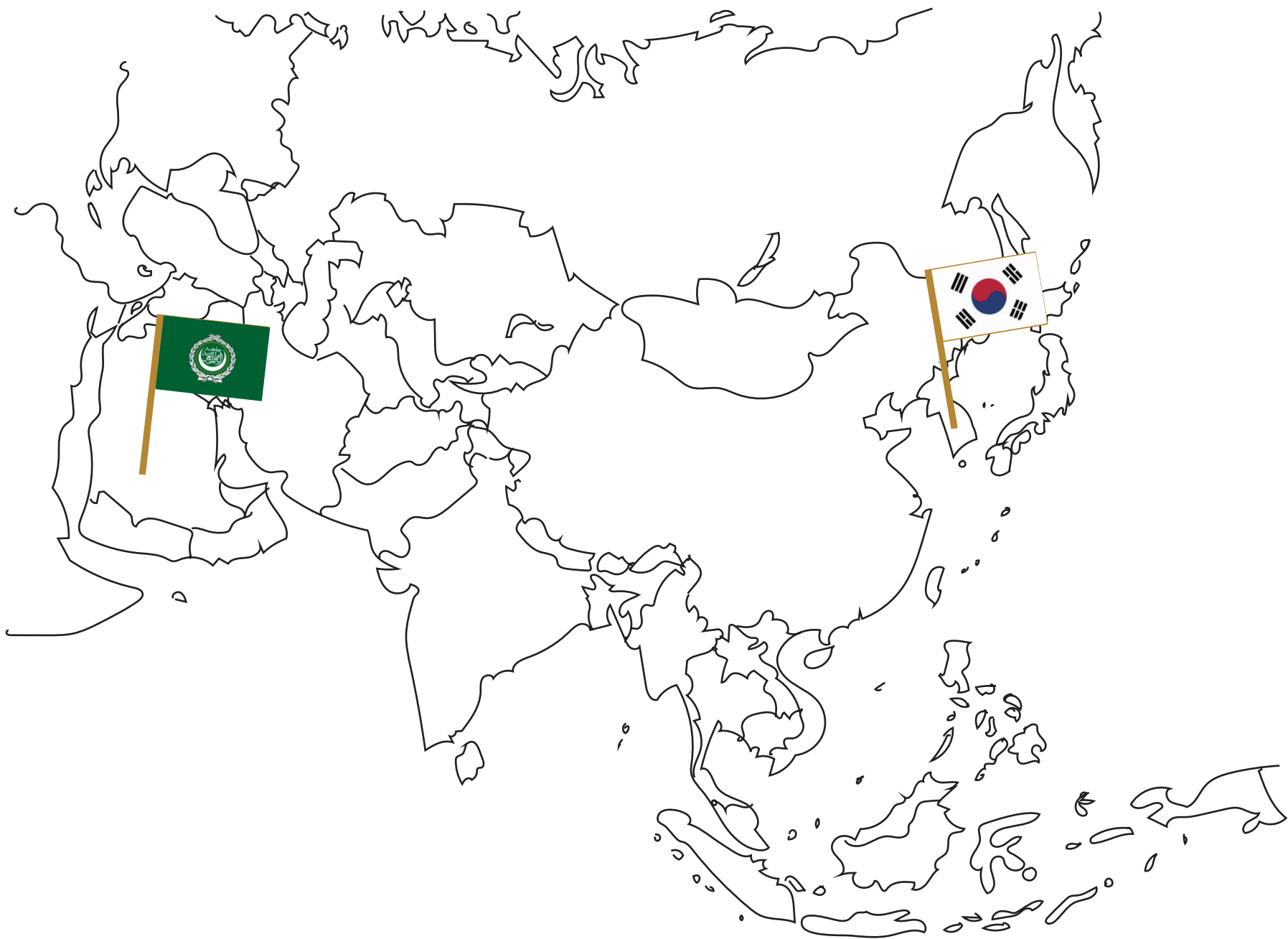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이주 배경과 고려인의 특성 때문에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언어적 측면에서 고려인 사회는 민족어와 민족어 중심의 교육 기반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인은 그들의 역사적 조국과의 물리적·언어적·문화적·정신적 거리가 멀고, 조국의 동포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과의 정체성의 차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고려인의 역사적 조국인 한국이나 북한의 고려인 귀환 정책의 미비로 귀국 대신 잔류하게 된 이들은 나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전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특징은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의 강한 귀속감을 도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의 인물에 대해 살펴본다.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지는 고려인들은 뛰어난 근면성의 모범을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다. 법조계를 살펴보면, 전문성과 선량한 인간관계로 수많은 카자흐스탄인의 존경을 받았던 카자흐스탄 초대 헌법 위원장인 김유리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회원이자 검찰차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지냈던 김게오르기 씨, 까라간다 경찰 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종사하고,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 민족대학교 법률대학 헌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김 V.C.박사 등이 있다. 교육계를 살펴보면, 사립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던 언어·통역대학원장 유가이 C. 씨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음악계에서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재즈 밴드와 알마티 한국극장 무대에 올랐고, 알마티 한국극장의 뮤지컬 감독으로도 활동한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가, 재즈 아티스트인 야코프 한 씨⁵²가 있다. 기업계에서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거대한 기업 중 하나가 된 ‘카자흐미시’⁵³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블라지미르 씨와 ‘쿠아트’⁵⁴의 남 올레그 사장도 있다.⁵⁵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스탈린 집권 시기 극동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이주부터 시작되었고, 소련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경험하며, 러시아어에 동화되어 왔다.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구성원으로 카자흐스탄에 동화되고 있다. 고려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체제 형태와 민족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1937년 강제 이주의 극한 상황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도 모국으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필자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모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재외특례법 준비, 공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경제적 이점 획득 등 정책적으로 준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⁵⁷

2-3.

한국과 아랍 국가의 산업 및 경제 교류



아랍 국가를 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무채색의 히잡을 쓴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아랍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랍 국가는 통상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며,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칭한다. 아랍 국가를 말하면 흔히 중동국가들이 떠오르겠지만, 모든 중동 국가가 아랍 국가인 것은 아니다. 중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지리적인 개념이다. 지리학적으로는 서남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할 수 있지만, 185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미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이 중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남아시아 즈음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명사로 자리잡았다.

앞서 언급했듯, 아랍(국가)은 민족, 문화적 개념, 언어 등을 통칭해서 나타내는 말이다. 중동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가 아랍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터키어를 사용하는 터키, 페르시아어와 히브리어를 각각 사용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랍 국가는 대개 아랍 연합에 가입해 있다. 창립 회원국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예멘 등의 7개국이다. 현재는 7개의 창립 회원국을 비롯해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쿠웨이트, 알제리, 바레인, 카타리, 오만, 아랍에미리트, 모리타니, 코모로, 소말리아, 지부티의 22개국이 연맹에 가입해 있다. 본 단원에서는 아랍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과 한국의 산업 및 경제 교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현재 알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과 아랍 국가(통상 ‘아랍’으로 표기하겠음)의 교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아라비아 상인 술래이만의 <중국과 인도소식>이라는 여행기에는 당시 통일신라를 찾아온 아라비아 상인은 신라의 비단과 검, 사향 등을 향료와 유리기구들과 교환하였다는 기록이 담겨있다. 846년에 이븐 쿠르다지바의 <제 도로(諸道路) 및 제 왕국(諸王國) 안내서(案內書)>에 따르면, 아랍인이 직접 신라로 진출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⁵⁸ 841년에 장보고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846년 아랍인의 본격적인 한반도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에는 이슬람을 나타내는 회회(回回)와, 무슬림을 일컫는 회회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고려 초기인 1024년에서 1025년에 이슬람 상인들이 100여 명씩 개성에서 수은, 방부제, 소목(외과 약) 등 고려에 없는 진귀한 공물을 바쳤다고 전해진다. 이에 고려왕 현종은 돌아가는 상인들에게 비단과 황금을 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몽골군의 서역 원정으로 이슬람 제국이 침체기를 맞자 고려와의 무역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후 고려 말 원간섭기에 이슬람인들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몽골인 그리고 색목인으로 불리던 서역 무슬림들이 고려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고려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궁중 행사 때 무슬림 대표,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되어 이슬람식의 의식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아랍 국가의 인사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슬람 문명의 과학기술 등을 통해 조선의 역법을 정비하였다. 아랍 국가와의 교역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공예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진출하던 아랍 국가는 중국의 폐쇄정책을 비롯해 조선의 전통적, 보수적인 유교 문화로 인해 또 다시 공백을 맞기도 했다. 조선 말기 불어온 개화 정책은 다시 한번 아랍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산유국에게는 경제 호황을 가져왔다. 중동의 아랍 국가는 오일머니를 통해 사회 기반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급진적인 개발 계획과 목표는 막대한 노동력을 요구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력의 충당으로 이어졌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중동으로 향하고자 했고, 1973년 삼환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 건을 따내면서 중동 진출의 막이 올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노동자 지원을 등에 업고 많은 건설사들이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났다.⁵⁹ 현대건설은 20세기 최대의 공사로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는 데 참여했다.⁶⁰ 1975년 7억 5천만 달러에 그치던 건설 수주액이 1980년 82억 달러에 도달하며 10배 이상 상승했고, 당시 한국의 외화 수입액의 85.3%가 오일머니였을 정도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견뎌낸 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6월 24일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50억 달러(6조 5천억)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공사를 수주했다.⁶¹ 현대건설 이외에도 중화학 공업단지 건설 기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공사 계약 건이 들려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 사업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터널인 ‘더 라인’의 공사를 수주하며, 10억 달러 규모(한화 약 1조 3,00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건설업과 관련한 건설 기계 산업도 부흥할 전망이다. 이렇게, 에너지 집중구조

인 아랍국가와 제조형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긍정적인 상호협력적 산업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는 외교 수출로, 환경부는 UAE와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수자원공동위원회(JOC)를 개최하면서 해수 담수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해외에서 관심이 많은 해수 담수화 사업과, 누수율 저감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사업은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에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⁶² UAE와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와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 산업에서도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사우디는 국내 게임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에 각각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각각 3대, 2대 주주에 올랐다.⁶³ 이외에도 이집트, 카타르, 모로코, 오만, 쿠웨이트 등 수많은 아랍 국가들과 국내 기업들이 건설, 의료, 전자, 식품, 게임 산업 등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일머니라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동권 아랍 국가와의 산업 교류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권 아랍 국가에서 요하는 주요 사업들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굴직한 국내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마련해 놓은 우호적인 외교 수출 루트를 타고 한국의 경제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더 알아보기] 한국의 테헤란로



테헤란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도로로 강남역에서부터 동쪽으로 잠실자동차극장 사거리까지를 말한다. 이름의 유래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다. 1977년 6월 27일 방한한 테헤란시 시장 골람레자 닉페이와 당시 서울특별시장 구자춘의 서울, 테헤란 간의 도로명 교환 합의 이후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도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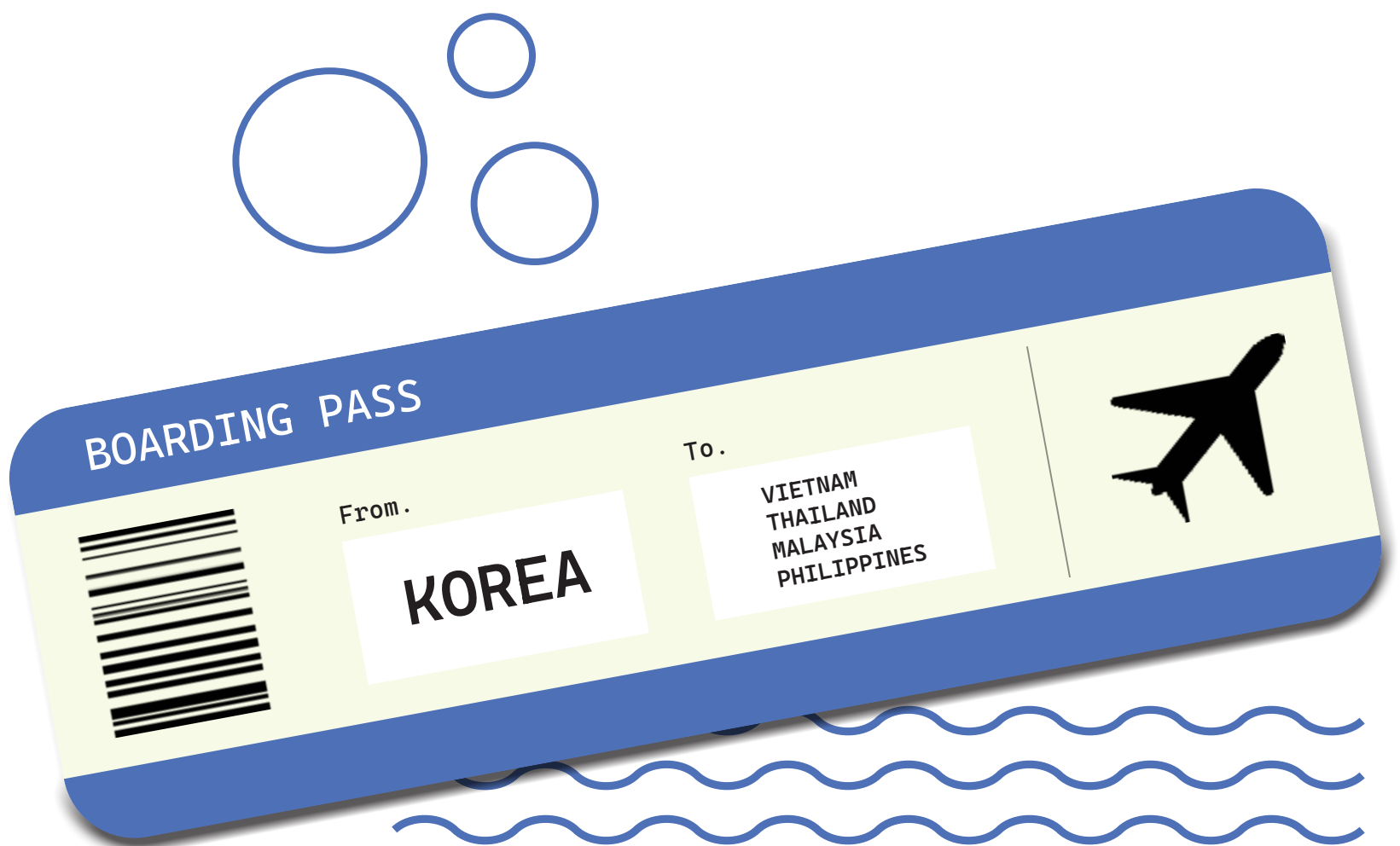
테헤란로는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이 부진했다. 당시 토지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됐고, 기존의 강남대로가 남북 방향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테헤란로에 상권이 들어서기란 쉽지 않았다. 이후 1984년 테헤란로 일대가 중심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 이후 1987년, 한국 종합 무역 센터 등 대형 건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다. 경기 호황과 맞물려 1990년대까지 테헤란로에 한국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본점을 이전하거나 신축했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가 테헤란로로 이전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이전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1997년 12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고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테헤란로의 금융 종사자들이 대거 이곳을 떠나게 된다. 이후, 청년 벤처 기업과 IT 사업 중심으로 테헤란로는 다시 한번 활력을 띠게 된다. IT 산업의 호황세가 끝나던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 벤처 사업 열기가 가라앉았고, 뒤이어 성형외과와 기타 병원이 입주했다. 이어서 기타 국적 대기업들이 들어오며 한때 브랜드 벨리로 불리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일부 IT 회사가 테헤란로를 떠났지만 신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기관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헤란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주

35. <한아랍교류>, “한국-아랍소사이어티”, <http://www.korea-arab.org/>
36. 위의 사이트 참고.
37. 박종민, “게임으로 향하는 ‘오일머니’...’50조’ 게임산업 투자 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게임산업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 될까”, <게임포커스>
38. 김종도, <아랍국가의 한국어 교육현황>, 중동문제연구, 9.1, 2010, pp.93-112.
39. 위의 논문, pp.93-112.
40.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문화예술경영, <문화 영역 ODA 관점에 따른 한·아랍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제3집 통권3호, 2013, pp.19-40.
41. 위의 논문, pp.19-40.
42. 조경현, “제천시,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고려인 안정적 정착 지원”, <충청신문>
43. 오윤주, “제천시, ‘고려인 이주’ 추진...“지방소멸 위기 대안 될 것””, <한겨레신문>
44. 박보성, “카자흐 고려인협회와 첫 교류협력 ‘성공’”, <충청일보>
45. <고려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6. 김중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과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연구, 7(1), 2016, pp 3-4.
47. <고려인 강제 이주 (高麗人 強制移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8. 위의 45번 논문, pp.6.
49. 이진혜,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아시아리뷰, 11(1), 261-290, 2021, pp.2.50.
50. 위 용어 설명란 참고
51. 위의 45번 논문, pp 3-6.
52. 아카쉴 다스탄, “[언론분석]카자흐스탄 유명 고려인 재즈 아티스트 야코프 한 별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53. 위 용어 설명란 참고
54. 위 용어 설명란 참고

55. 사르셈바예브 엠. 아.,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한국 관계.민족연구>, (37), 2009, 192-197.
56. 이진혜,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아시아리뷰, 11(1), 261-290, 2021, pp.25.
57. 김중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과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연구, 7(1), 2016, pp.19.
58. <한아랍교류>, “한국-아랍소사이어티”, <http://www.korea-arab.org/?c=user&mcd=exchange>
59. 장정현,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 <경향신문>
60. 유영선, “[현대이야기<11>] ‘주베일 항만공사’로 韓경제 구하고 글로벌 건설사로 우뚝 선 현대”, <천지일보>
61. 김서온, “제2의 중동붐” 들쭉이는 K건설 [현장 써머리]”, <아이뉴스24>
62. 고흥주, “환경부 “9200억 UAE 해수담수화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뉴시스>
63. 이원용, “넥슨·NC에 1조원 쏜 사우디 국부펀드, 카카오엔터에 투자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 * [더 알아보기 사진] <테헤란로>, 퍼블릭도메인



3.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

3.1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3.2 베트남 전쟁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

3.3 한국과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의 현재와 미래

[더 알아보기] 동남아시아와 K-CULTURE

3-1.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세계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후진국으로 분류되던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세계로의 진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먼저 정의해 보자. 동남아시아 국가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196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5개 국가로 시작해, 이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를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규정한다.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 확대 방향성 중 하나는 한국을 향해 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동남아시아인들의 한국 진출 및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개발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합류는 개발 중인 동남아 국가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 충분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한류 열풍의 바람에 올라타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문에서는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성, 더불어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베트남과 태국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어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내 외국인 체류자 중, 베트남과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라는 통계치를 이유로,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베트남은 신흥경제국가로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됨과 동시에,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이 늘어나고, 한국어 교육을 통한 취업 시장의 확대로 경제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한류의 확산과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실시된 이후로부터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었다. 한국 취업 시장의 수요가 상승하고 유학, 결혼 등 여러가지 경로의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어 교육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베트남 고교 과정에서 한국어를 시범 채택한 이후, 2019년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면서 고교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2020년 기준 베트남의 32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14개의 고등학교, 15개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당을 운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⁶⁴

베트남 대학의 교육 목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여 한 국가의 문화와 경제체제를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언어학습을 선행에 두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선행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 현상과 정치, 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 시장으로의 배출을 목표에 두는 것이다.⁶⁵ 또한 베트남 노동부 산하에 있는 어학 기관에서 한국어 인증 시험(EPS-TOPIK)을 위해 자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사설 학원까지도 생겨난 상황이다. 개설 초기에는 입학생의 수가 간소한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교 측의 정원 확대와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⁶⁶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한국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자생적으로 한국어 교육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세종학당 운영 등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원 수급 문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태국의 송클라대학이 1986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며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태동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도입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태국은 200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의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실시하고, 중고교과정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함으로써 태국의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태국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목 확대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09년 5월, 한국-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어 교육이 의제로 다뤄져 태국 정부의 정책에 한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학능력시험 격인 태국의 대학입학시험(PAT)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면서 태국 내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존재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2020년 기준 태국의 30개 대학, 138개의 고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지원 5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태국의 한국어 교육은 지역 전문가들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문가들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잘 어우러져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위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태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으로의 진출 목적, 결혼 시장의 확대, 한류의 열풍과 양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량의 제한에 따라 깊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동남아권 국가들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교원 수급 문제 등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인지한 채 올바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한국어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어 교육을 보급해 나간다면 한국어 교육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교육의 질 또한 높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베트남 전쟁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



베트남 전쟁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국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던 당시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은 어쩌면 최고의 기회였다. 당시 한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미국의 원조가 절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박정희 정부 또한 이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박정희는 미국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꾀했다.⁶⁷ 이 절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해 베트남 전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된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항복 이후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이었던 호치민이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언했으나 19세기 중엽 이래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밀려났던 프랑스는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이권을 잃지 않고자 했다. 이에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인들은 프랑스의 야욕에 대항하여 제1차 베트남 전쟁을 치러야 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프랑스가 1954년 5월 디엔 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네바 협정에 따른 향후 2년 간의 관리 임무를 저버린 상태로 1956년 베트남의 국민 투표를 앞두고 베트남에서 철수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속화됐고 1963년 린든 B. 존슨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확대됐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국은 25개의 우방국에 남베트남 지원을 요청했다.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시작됐고 지상군, 즉 육군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고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 회담 육군 사단의 베트남 파병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을 경제 개발의 여건 마련과 안보 강화의 기회로 생각했으며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까지 염두에 두었다.

실제로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런 구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먼저 주한미군의 유지에 대해 확인을 받았고 만일 철수가 필요할 경우 한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을 방위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한국군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군사 원조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고 경제 분야의 원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으로 1억 5,000만 달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⁶⁸ 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이득을 실현하려 시도했다. 1966년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군사 장비의 제공과 더불어 추가 파병을 위한 경비와 장비 제공이었다. 또한 한국 측이 요구한 군사 원조 이관의 중단,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추가 차관 제공과 기술 원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병 이후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 또한 강화됐다. 파트너십의 강화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낙후된 한국군의 군사 장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가 미

국의 지원을 통해 선진 기술을 전달받았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전쟁을 통한 전쟁 특수로 한국은 피원조국에서 벗어나 자립의 발판을 얻게 됐다. 실제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는 연평균 1억 달러였으며 이 기간 동안 1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원됐다.⁶⁹ 한편 박정희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실행한 결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유무상 차관의 제공과 군사 원조 그리고 파병 군인에 대한 근무 수당 제공, 물자 구매를 통한 간접 지원, 베트남에 대한 수출 지원을 통해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됐다. 미국의 직·간접적 지원과 전쟁 특수 그리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의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하면 총 수입은 약 50억 달러로 추정된다.⁷⁰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도모와 미국과의 관계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적 손실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5,000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와 약 1만 1,0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여전히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참전용사의 존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⁷¹ 베트남 파병 군인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피부 질환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참전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귀국한 이후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그것이 고엽제로 인한 증상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그런 사실을 은폐했고 피해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엽록소를 고사시킨다는 뜻을 가진 고엽제, 일명 에이전트오렌지라고 불리는 맹독성 제초제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기까지 했다.⁷² 이중배상금지 규정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다. 본래는 베트남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어 사상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전쟁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전사자와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가 많아지자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대로 거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경제 개발 투입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신 헌법에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고엽제를 비롯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파병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군이 파견됐던 베트남 전쟁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쳤다.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과 베트남 전쟁을 통한 전쟁 특수, 그리고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지원은 한국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발판이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받은 선진 기술을 통해 노후화됐던 한국의 군사 장비와 체계가 형성됐고 구형 무기와 구형 전차를 사용하던 한국군의 현대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고엽제 피해와 참전 군인에 대한 형편없는 처우 문제 외에도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와 참전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 등이 쌓여 있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한국 경제 성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적지 않고 일부 참전 병사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으며 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이 얻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고도 균형감 있게 따져보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참전 병사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뿐 아니라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통해 베트남과의 역사적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3-3.

한국과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는가?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1970년대 말 일본의 뒤를 이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 즉 대한민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를 이르는 용어이다.⁷³ 지금은 네 국가를 신흥 공업국으로 부르지 않는다. 현재 신흥 공업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브라질, 중국,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등이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도 신흥 공업국으로 포함되는데, 이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과거부터 신흥 공업국으로 불렸던 국가지만, 동남아시아는 최근에 신흥 공업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경우다. 대표적인 국가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다. 이 국가들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만큼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세계 무대에 보여주었다. 대부분 한국인이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해 덜 알려진 동남아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두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기 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용어를 경제 성장과 혼동하여 사용하곤 한다. 또한, GDP 증가나 경제성장률을 통해 경제가 발전됐다고 종종 착각한다. 경제 용어의 혼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정의하고자 한다.

경제 성장이란 한 기간에서 다른 기간에 비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수용력을 말한다. 반면, 경제 발전은 한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복지를 향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경제 성장은 경제적 성장만 의미하지만, 경제 발전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성장을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⁷⁴ 국가별 경제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 발전 계획을 들여다볼 것이다. 국가는 사회경제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입각한 경제, 사회, 복지 정책들을 펼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 발전 계획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경제 발전의 현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두 국가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한국과의 관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두 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으로 분류된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순차적으로 글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최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10월 18일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8~20년 사회경제정책)을 국내외 경제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시행으로 상당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각료의 부정부패 영향으로 계층·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사회경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부진한 경제 구조 개혁 결과를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농촌·지역별·주별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생산요소⁷⁵ 투입형 경제 성장 구조 지속, 개발 프로그램 정부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신정부는 이전 정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8~202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회경제 정책을 재설정하였다. 특히 전략적 추진 분야를 수정·보완하여 6개 핵심 부문인 공공서비

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재고를 지배 구조 개혁·포용적 경제 발전 및 복지 개선·지역 균형 발전 추구·인적자원 역량 강화·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재고·경제성장 강화로 재구축하였다.⁷⁶ 또한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개혁, 부정부패 해결 그리고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고, 이를 위해 2가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이다.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공공부채 감축, 연료 보조금 부활 등의 복지에 투입하여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의 제도 개혁을 실천한다. 둘째, 경제 혁신 프로그램인 ‘ETP(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추진이다. ETP는 ASEAN 선도국 부상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해 12개 국가 핵심 분야와 각각의 분야별 총 131개 세부 진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이때, 12개의 국가 핵심 분야는 아래와 같다.

석유·가스	팜오일	금융서비스	민간 의료서비스
도소매	관광 서비스	정보통신	교육
전기·전자	비즈니스	농업	쿠알라룸푸르 국제화

[12개 국가의 핵심분야]

태국의 최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중장기 전략과 5개년 계획 전략으로 구분된다. 먼저 중장기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태국 정부는 ‘선진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20년 국가 발전 전략 (2017~2036)’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자족경제 철학’을 핵심으로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을 장기적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우선 전략과 4개의 지원 전략을 설정하였다. 우선 전략은 ▲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 정의 구현 및 사회 불평등 감소 ▲ 경제 증진 및 지속 가능한 경제력 강화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 성장 추진 ▲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국가개발을 위한 국가 안정 ▲ 공공부문 효율성 및 거버넌스 강화라는 내용을 가진다. 지원 전략은 ▲ 인프라 및 물류 개발 ▲ 과학·기술·연구·혁신 향상 ▲ 도시·지역·경제구역 개발 ▲ 국제 개발 협력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5개년 계획 전략을 살펴보면, 태국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 경제·사회개발 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을 세운다. 현재 12차 (2017~2021년)로 ‘20년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태국은 경제 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대별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장’에 주력했으나, 점차 사회안정, 자족경제 등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경제 발전 전략을 변화하였다. 최근 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둔화, 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의 대내적 이슈와 사회구조 재편, 강대국들의 영유권 분쟁 이슈 발생 등의 대외적 사건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에서 극복하고자 태국 정부는 농업·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점차 ‘지식기반경제’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혁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2차 NESDP에서 직면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경제특구 및 지역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10대 발전 전략을 채택한다. 10대 발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각주 용어 설명 >

75.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생산요소라 한다.

인적자본 강화	정의사회 구현 및 불평등 해소	경제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성장
국가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안보 강화	태국 사회의 공공 행정, 부패 방지,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및 물류 발전	과학, 기술, 연구, 혁신
지역, 도심, 경제구역 개발	국제협력		

[10대 발전전략]

이를 바탕으로 태국 정부는 2가지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첫째,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지역 개발이다. 정부는 EEC 개발에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약 4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촌부리-파타야 고속도로, 우타파오 국제공항, 3개 공항(돈므앙-수완나폼-우파타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람차방 항구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EEC 지역 내 자동차 및 항공우주산업 등 10대 집중 육성 산업 관련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디지털 경제 정책이다. 주요 정책으로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 설치 및 정보통신 분야 주요 법안 개정이 있다. 또한, 전국 범위의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연결, 디지털 센터 및 디지털 공원 설립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과 기계 및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그리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⁷⁷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3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공부채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 일본,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 강화 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구체적 산업 부문은 할랄식품업, 자동차산업, 팜유 산업, 원유 및 가스산업, 건설산업 등 5개 산업 부문에 대해 우선으로 판단한다.⁷⁸

반면 태국 정부는 10개의 전략적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동부경제회랑’, ‘디지털 태국’ 등 경제개발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때, 한국 기업은 물류, 자동차, ICT, 보건 및 웰니스 등 태국의 핵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10개 산업 중 대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존재하여 양국 간의 협력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효과적 협력 추진을 위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성공 사례를 축적해 가는 것이 관건으로 판단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태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개별 기업의 투자 확대나 현지 진출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공동으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⁷⁹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 이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흥 공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경제 정책과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축적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동남아 국민의 인식이나 긍정적 이미지를 설정하여 장기간 경제적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알아보기]

동남아시아와 K-CULTURE



흔히 ‘한류’라고 일컫는 K-CULTURE는 한국 드라마, K-POP, 한국 음식 등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K-CULTURE는 동남아시아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가 성행하기 이전에 소위 ‘일류⁸⁰’가 성행한 지역이었다. 2002년에 들어서야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한류 중심은 드라마 장르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K-POP으로 장르의 중심이 이동한 상황이다. 나아가, K-POP 이외에 한국 영화와 예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K-POP의 인기로 인도네시아에 한국 도서를 번역하여 읽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자기계발서, 위인전, 에세이, 시집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책들이 번역되어 여러 인도네시아인들이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에서 K-POP의 인기는 2010년대에 접어들며 크게 고조되었다. K-POP 가수들의 실력과 콘텐츠 수준, 한국 기획사들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전략이 태국에서의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블랙핑크의 리사, (여자)아이들의 민니, GOT7의 뱀뱀 등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를 통해 태국에서 K-POP이 누리는 인기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에 한류가 베트남 전역에 전파되었다. 최근에는 한류의 중심이 K-POP으로 넘어가서 베트남 내에 K-POP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뉴진스의 팜하니, 템페스트의 한빈 등 베트남 출신의 가수들이 한국 K-POP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다수의 기획사들은 베트남 현지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K-POP 공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방송과 관련된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는 젊은 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다는 점,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앞서 언급한 필리핀 내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시장’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정치 및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외교 대상들인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한류가 더욱 더 성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각주 용어 설명 >

80. 일본 대중문화 유행 현상을 의미한다.

각주

64. 조항록,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1, 2021, pp. 211-234.
65. 위의 논문 참고
66. 위의 논문 참고
67. 장용운, <베트남전쟁이 한국군 현대화에 미친 영향>, 국방정책연구, 26.4, 2011, pp.209-245.
68. 위의 논문, pp.209-245.
69. 위의 논문, pp.209-245.
70. 한관수,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영향과 남겨진 과제>, 한국보훈논총, 10.3, 2011, pp.131-156.
71. 위의 논문, pp.131-156.
72. 강창엽,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의 실상과 대책>, 황해문화, 50, 2006, pp.82-88.
73. 어기선, “[역사속 경제리뷰] 아시아 네 마리 용”, <파이낸셜 리뷰>
74. 박정호, “[역사 속 숨은 경제이야기]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 <생글생글>
75. 위 용어 설명란 참고
76. 강명구, <제 2장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정책과 한.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제760호 71, 2019, pp.8-9.
77. 김규연, <태국의 경제발전정책과 한.태국 협력 확대 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제760호 39, 2019, pp.10-14.
78. 위의 76번 논문, pp.30-31.
79. 위의 77번 논문, pp.30-31, 2019
80. 위 용어 설명란 참고
- * [더 알아보기 사진] <문화교류>, flickr



참고 문헌

<논문>

1. 민성홍, <국가 대형이벤트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 2003
2. 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과-국내 IT산업에 미친 영향과 과제>, 정보화 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 2002
3. 변상호 외 2명.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이 한국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4. 강두용,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 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KIET 산업 연구원, 2006.02
5. 徐吉洙, <중국의 역사왜곡 현장에 관한 사례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2005
6. 권기영(Kwon Ki-Young),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 문화연구, 2017
7. 몽크나트산 외 2명,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몽골학, 65, 297-320, 2021
8. 김홍진, <한-몽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고찰: FTA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2), 2006
9. 몽크나트산, 어트경사이항, 김홍진,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 몽골학, 65, 297-320, 2021
10. 칼리운, <한국과 몽골의 무역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1. 김홍진, <투르크.알타이 경제권 자료집 36>.,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2021
12. 전황수, <대만 ITRI 현황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13. 김중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과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연구, 7(1), 2016
14. 이진혜,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아시아리뷰, 11(1), 261-290, 2021
15. 사르셈바예브 엠. 아.,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한국 관계.민족연구>, (37), 2009
16. 김종도(Kim Jong-Do), <아랍국가의 한국어 교육현황>, 중동문제연구, 9.1, 2010
17.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문화예술경영, <문화 영역 ODA 관점에 따른 한 · 아랍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제3집 통권3호, 2013
18. 조항록,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1, 2021
19. 장용운, <베트남전쟁이 한국군 현대화에 미친 영향>, 국방정책연구, 26.4, 2011
20. 한관수,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영향과 남겨진 과제>, 한국보훈논총, 10.3, 2011
21. 강창엽,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의 실상과 대책>, 황해문화, 50, 2006
22. 강명구, <제 2장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정책과 한.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제760호 71, 2019
23. 김규연, <태국의 경제발전정책과 한.태국 협력 확대 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제760호 39, 2019

<사이트 & 기사>

1. 정가영, “[정가영의 유통시그널] 맥주는 일본산 여행은 일본행...‘노재팬’은 옛말”,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2. 문수정, “‘동탄과 똑닮’...몽골 울란바토르가 ‘몽탄 신도시’로 불리는 까닭은”, <국민일보>
3. <KOTRA 한국 무역 현황>, “상세 통계”,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MN/ALL/2022/Y/exp>
4. 서민규, “에기연·대만 산업기술연구원, MOU”, <투데이에너지>
5. 안현진, “대만 방폭인증시험, 국내서도 가능해진다”, <안전신문>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만 과학기술부 및 ITRI 방원”, <포토뉴스>
7. <한아랍교류>, “한국-아랍소사이어티”, <http://www.korea-arab.org/>
8. 박종민, “게임으로 향하는 ‘오일머니’...’50조’ 게임산업 투자 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게임산업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 될까”, <게임포커스>
9. 조경현, “제천시,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고려인 안정적 정착 지원”, <충청신문>
10. 오윤주, “제천시, ‘고려인 이주’ 추진...“지방소멸 위기 대안 될 것””, <한겨레신문>
11. 박보성, “카자흐 고려인협회와 첫 교류협력 ‘성공’”, <충청일보>
12. <고려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7313>.
13. <고려인 강제 이주 (高麗人 強制移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74>
14. 장정현,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 <경향신문>
15. 유영선, “[현대이야기<11>] ‘주베일 항만공사’로 韓경제 구하고 글로벌 건설사로 우뚝 선 현대”, <천지일보>
16. 김서온, “제2의 중동붐” 들쭉이는 K건설 [현장 써머리]”, <아이뉴스24>
17. 고흥주, “환경부 “9200억 UAE 해수담수화 수주...물산업 수출 성과”, 뉴시스
18. 어기선, “[역사속 경제리뷰] 아시아 네 마리 용”, <파이낸셜 리뷰>
19. 박정호, “[역사 속 숨은 경제이야기]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 <생글생글>

<논평 및 브리프>

1. 이광상, 「중국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및 전망.」, 『주간 금융 브리프』, 2021
2.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성장률 0.5%p 하락.」, 『한국경제주평』, 2016
3. 김홍진, “[전문가오피니언] 한·몽 EPA 추진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 포털>, 2020

[도움을 주신 분들]

아주대학교 사학과 한상준 교수님
아주대학교 사학과 임정운 교수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한성 교수님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구병 교수님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황선영 교수님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어 담당 배공주 교수님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이현서 교수님

[기획/제작/편집]

아주대학교 사학과 18학번 김주영
아주대학교 사학과 22학번 최성전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 이가은
아주대학교 사학과 20학번 장민서
아주대학교 사학과 23학번 유승진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2학번 윤수현
아주대학교 사학과 23학번 양준서
아주대학교 사학과 23학번 이나현
아주대학교 사학과 23학번 권혜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한국과 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조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과 아시아 국제관계 사료집

(Republic of Korea and Asia Realationship Material)



발행일	2023년 11월 14일
지은이	김주영, 최성전, 이가은, 장민서, 유승진, 윤수현, 양준서, 이나현, 권혜리
발행처	퍼플
출판등록	제300-2012-167호 (2023년 11월 14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	1544-1900
홈페이지	www.kyobobook.co.kr

© EastLander 2023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